

보 도 해 명 자 료 (’19. 5. 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수출 잠정치와 확정치는 통계적 오차에 따라 발생하며,
그 차이는 미미함 (한국경제 인터넷판 5.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수출 잠정치와 확정치는 통계적 오차에 따라 발생하며, 그 차이는 미미함
◇ 5월 4일 한국경제 인터넷판 <이상한 수출통계...매번 숫자 더 나쁜 확정치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 내용

- ❶“매월 1일 발표하는 잠정치와 15일 확정치 비교시 적지 않은 차이임”, ❷“수출 확정치의 경우 별도 자료를 내지 않음”, ❸“아세안 실적에 베트남이 이미 포함돼 있는데도 베트남 수출액을 기재함으로써 아세안 수출 실적을 매우 좋은 것처럼 보이기 하기 위해 중복으로 작성함”, ❹“정부 관계자가 “19년 상반기 수출이 나빠진 이유 중에 작년 말 실적을 지나치게 많이 앞당겨 잡았던 측면이 있다”라고 언급하였다.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❶ 매월 1일 산업부가 발표하는 수출입 실적은 관세청이 집계하는 통관자료를 기초로 하는 잠정치로서 확정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
- 수출 잠정치와 확정치 차이는 ①일부 수출기업들이 수입국과 세부 일정 변경 등에 따라 통관을 취소 또는 연기 하는 경우, ②달러화를 원화·유로화·엔화 등으로 통화표시를 오류 기재함에 따라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발생함

- 다만, 두 수치간 차이는 크지 않으며(’16.1~’19.3, 잠정치 대비 확정치는 $\Delta 0.27\%$ 차이), 다음달 보도자료에 전월 확정치를 반영하여 발표함

< 수출 잠정치 및 확정치 수치 비교 > < 단위 : 억 달러, % >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'16	잠정	367	364	430	410	398	453	410	401	409	419	455
	확정	363	359	430	411	397	452	409	401	408	420	453
	오차	$\Delta 1.3$	$\Delta 1.4$	0.2	0.1	$\Delta 0.1$	$\Delta 0.2$	$\Delta 0.4$	$\Delta 0.0$	$\Delta 0.03$	0.08	$\Delta 0.4$
'17	잠정	403	432	489	510	450	514	488	471	551	449	497
	확정	403	432	486	508	449	513	488	471	551	448	497
	오차	$\Delta 0.2$	$\Delta 0.1$	$\Delta 0.5$	$\Delta 0.3$	$\Delta 0.3$	$\Delta 0.3$	$\Delta 0.0$	$\Delta 0.0$	$\Delta 0.0$	$\Delta 0.4$	$\Delta 0.1$
'18	잠정	492	449	516	501	510	512	519	512	506	550	519
	확정	492	445	513	499	507	511	518	512	507	549	515
	오차	$\Delta 0.02$	$\Delta 0.8$	$\Delta 0.5$	$\Delta 0.4$	$\Delta 0.6$	$\Delta 0.3$	$\Delta 0.1$	$\Delta 0.03$	$\Delta 0.1$	$\Delta 0.2$	$\Delta 0.9$
'19	잠정	464	396	471								
	확정	462	394	471								
	오차	$\Delta 0.4$	$\Delta 0.3$	$\Delta 0.02$								

- ❷ 매월 1일 산업부의 잠정치 발표 후 15일 확정치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 바, 기사에서 언급한 "수출 확정치의 경우 별도 자료를 내지 않는다"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
- ❸ 베트남은 아세안의 최대 시장(아세안 수출의 48.6%(’18년 기준)이라는 점에서 별도 세부 분석을 위해 수출 실적을 아세안과 분리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바, 기사에서 언급한 “베트남 실적이 아세안 수출에 중복으로 잡힌다”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
- ❹ ’19년 상반기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단가 하락, 미중 무역분쟁 지속, 전 세계 교역 부진 등에 있으며,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익명의 정부관계자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

※ 문의 : 수출입과 조익노 과장(044-203-4040) / 한주현 사무관(044-203-4041)